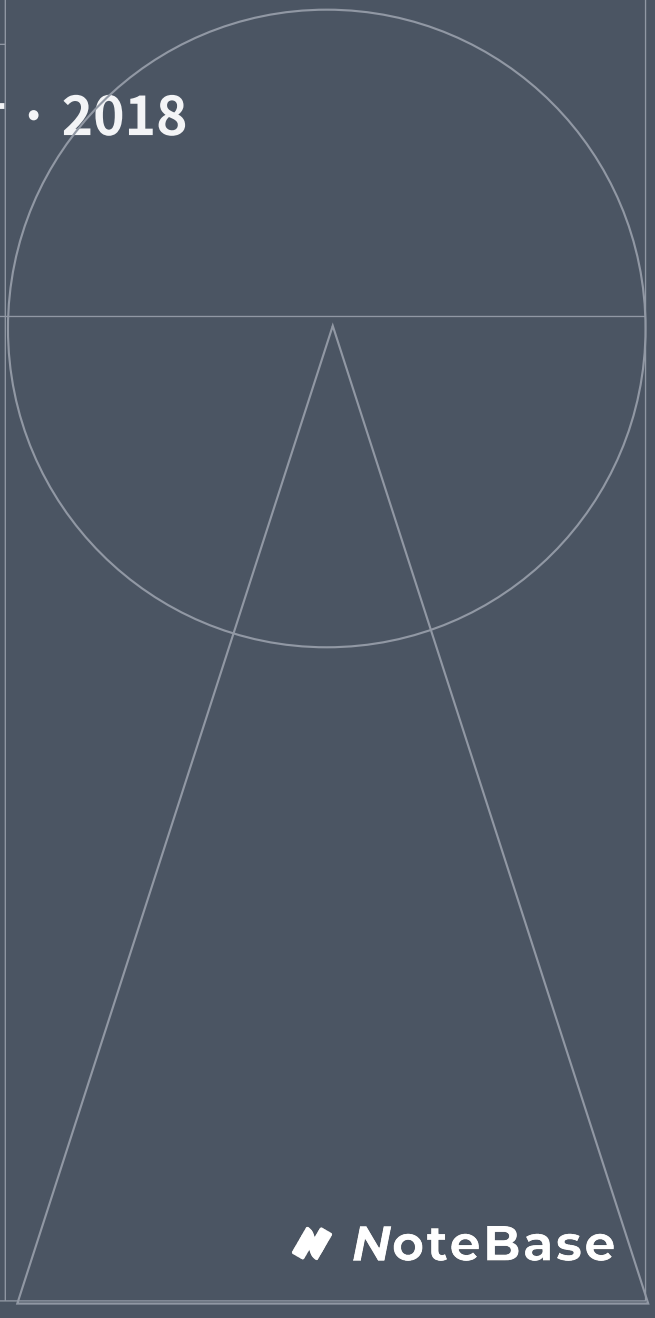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8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8

문 1. (주)구봉은 20×1년 1월 1일에 생산용 기계 1대를 ₩100,000에 구입하였다.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액은 ₩20,000으로 추정되었으며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고 있었다. (주)구봉은 20×3년도 초에 동 기계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규모의 수선을 시행하여 ₩16,000을 지출하였다. 동 수선으로 내용연수는 2년이 연장되었으나 잔존가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계와 관련하여 20×3년도에 인식될 감가상각비는?

① ₩ 28,000

② ₩ 24,000

③ ₩ 20,000

④ ₩ 14,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성능을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수선비는 **기계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수선 후 장부금액 76,000원에서 잔존가액 20,000원을 뺀 금액을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 4년**에 배분하므로,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14,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선 전 장부금액: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한다. 당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 - 20,000)/(4) = 20,000원이다. 20×1년과 20×2년의 2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 × 2 = 40,000원이므로, 20×3년 초 수선 전 장부금액은 100,000 - 40,000 = 60,000원이다.

수선 후 장부금액: 이번 수선은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므로, 지출액 16,000원을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수선 후 장부금액은 60,000 + 16,000 = 76,000원이다.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 당초 내용연수 4년 중 이미 2년을 사용했으므로 수선 직전 남은 기간은 2년이다. 여기에 연장된 2년을 더하면 **앞으로 사용할 기간은 4년**이다. 내용연수 변경은 과거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변경 이후에 반영한다.

20×3년도 감가상각비: 수선 후 장부금액 중 변동 없는 잔존가액 20,000원을 제외한 56,000원을 앞으로 4년간 배분한다. 수선이 연초에 이루어졌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1년 전체에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76,000 - 20,000)/(4) = 14,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율은 8회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은 10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과목	기초	기말
매출채권	₩ 10,000	₩ 20,000
재고자산	₩ 8,000	₩ 12,000

① ₩ 20,000

② ₩ 16,000

③ ₩ 13,000

④ ₩ 12,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평균잔액**에 각각의 회전율을 곱하면 매출액은 120,000원, 매출원가는 100,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평균잔액: 한 기간의 매출액·매출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을 사용한다. 자료의 매출채권은 기초 10,000원·기말 20,000원이고, 재고자산은 기초 8,000원·기말 12,000원이다.

평균 매출채권 = $\frac{10,000 + 20,000}{2} = 15,000$원

평균 재고자산 = $\frac{8,000 + 12,000}{2} = 10,000$원

매출액: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회전율 8회는 매출액이 평균 매출채권의 8배라는 뜻이다.

매출액 = 15,000 × 8 = 120,000원

매출원가: 이 문제의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전율이 10회이므로 매출원가는 평균 재고자산의 10배이다.

매출원가 = 10,000 × 10 = 100,000원

매출총이익: 상품 판매로 얻은 매출액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매출총이익 = 120,000 − 100,000 = 20,000원

계산한 20,0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②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않는다.

③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④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에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거래가 중복 표시되지 않도록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주석도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이며,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등을 설명하여 수치만으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한다.

② X: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에는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한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가 기금에 자금을 이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새 자원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내부 이전을 제거해야 한다. 선지의 '상계하지 않는다'는 '상계한다'로 고친다.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 것은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처리이다(제9조제3항).

③ O: 규칙 제9조제4항은 재무제표를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의 비교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두 연도의 재정상황과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교되는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④ O: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회계실체는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행정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고, 사업형은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반회계·기금회계 등 회계구분에 따른 유형 분류와는 구별되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4. 서울상사의 가전 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투자수익률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목표 투자수익률은 20%이다. 가전 사업부의 연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목표 투자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가전 사업부의 제품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투자수익률은 평균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금 액
고정원가	₩60,000,000
생산 단위당 변동원가	₩3,000
생산 및 판매 대수	40,000대
평균총자산	₩100,000,000

① ₩3,500

② ₩4,000

③ ₩4,500

④ ₩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평균총자산 100,000,000원에 목표 투자수익률 20%를 적용하면 필요한 영업이익은 20,000,000원이다. 총원가 180,000,000원에 이 이익을 더한 매출액을 확보하려면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5,000원**이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목표 영업이익: 투자수익률은 평균총자산에 비해 영업이익을 얼마나 얻는지를 나타내므로, 투자수익률 = 영업이익평균총자산이다. 따라서 **목표 영업이익**은 평균총자산 100,000,000원 × 20% = 20,000,000원이다.

총원가: 기초재고가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40,000대이므로,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모두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된다. 총변동원가는 3,000원 × 40,000대 = 120,000,000원이며, 여기에 고정원가 60,000,000원을 더하면 총원가는 180,000,000원이다.

필요 매출액: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총원가를 뺀 금액이다. 목표 영업이익 2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매출액은 18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0원이다.

단위당 최소판매가격: 필요한 매출액을 판매량 40,000대로 나누면 $\frac{200,000,000}{40,000} = 5,000$원이다. 이 가격에서 투자수익률이 목표치 20%가 되며, 더 낮은 가격에서는 원가와 판매량이 같으므로 목표 영업이익에 미달한다. 따라서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5,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단일의 생산공장에서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계연도말에 원가를 계산하면서 기말재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실제보다 30% 낮게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재공품 완성도의 오류가 결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기 생산 제품은 모두 판매되었고, 기말제품재고액은 없다)

① 영업이익의 과소계상

② 매출원가의 과소계상

③ 기말재공품의 과소계상

④ 이익잉여금의 과소계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낮게 평가하면 재공품에 배분할 원가가 줄고 완성품에 배분할 원가는 늘어난다. 당기 생산 제품을 모두 판매했으므로 매출원가는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선지별 해설

완성도는 미완성 상태인 재공품에 생산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30% 낮게 평가하면 재공품의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완성품환산량이 작아져, 기말재공품에 배분되는 원가는 줄고 완성품에 배분되는 원가는 늘어난다. 배분할 전체 제조원가는 이 오류로 달라지지 않는다.

① O: 당기 생산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으므로 완성품에 원가가 과다하게 배분되면 매출원가도 커진다. 매출액과 판매비와관리비는 이 오류로 변하지 않으므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된다.

② X: 기말재공품에 배분하지 못한 원가는 완성품 원가에 포함된다. 기말제품재고가 없고 당기 생산 제품을 모두 판매했으므로 그 원가가 매출원가로 반영된다. 따라서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을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완성도를 낮게 평가하면 기말재공품에 실제보다 적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가를 적게 배분한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는 **기말재공품 원가가 과소계상**된다.

④ O: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가산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말 이익잉여금도 과소계상**된다.

NoteBase

문 6.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의 취득 시 구매자가 인수운임, 하역비, 운송기간 동안의 보험료 등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② 위탁상품은 수탁기업의 판매시점에서 위탁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재고자산의 매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매출총이익이 평균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매출총이익보다 더 높게 보고된다.

④ 재고자산의 매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계속기록법하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와 실지재고조사법하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의 매출원가는 동일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입단가가 계속 하락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비싼 재고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배분한다. 같은 매출액에서 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높아지므로, 매출총이익은 **더 낮게** 보고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뿐 아니라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부담한 인수운임, 하역비, 운송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 O: 위탁판매는 위탁기업이 상품의 판매를 수탁기업에 맡기는 거래이다. 상품을 수탁기업에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위탁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수탁기업이 **외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위탁기업이 수익을 인식한다.

③ X: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재고부터 판매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배분하고, 평균법은 재고의 원가를 평균하여 배분한다. 매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먼저 매입한 재고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평균법보다 높아진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므로, 같은 매출액에서는 선입선출법의 매출총이익이 평균법보다 **더 낮게 보고된다**. 선지의 '더 높게'를 '더 낮게'로 고쳐야 한다.

④ O: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기간 전체의 매출원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은 두 기록방법 모두 먼저 매입한 재고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므로, 기말재고에는 나중에 매입한 재고의 원가가 남는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액과 기간 전체의 매출원가가 동일하다**. 매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 관계는 유지된다.

NoteBase

문 7. ㈜대한은 20×1년 1월 1일 컴퓨터 A를 취득하였다.(취득원가 ₩2,100,000, 잔존가치 ₩1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20×3년 1월 1일 ㈜대한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A를 ㈜민국의 신형 컴퓨터 B와 교환하면서 현금 ₩1,5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교환 당시 컴퓨터 A의 공정가치는 ₩1,325,450이며,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대한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① 처분손실 ₩25,450

② 처분이익 ₩25,450

③ 처분손실 ₩65,450

④ 처분이익 ₩65,4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므로 컴퓨터 A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 1,325,450원이 교환일 장부금액 1,300,000원보다 커 처분이익은 25,450원이다.

계산 과정

연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2,100,000 − 100,000 = 2,000,000원이다.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5} = 400,000$원이다.

교환일 장부금액: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월 1일까지 사용기간은 **2년**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 × 2 = 800,000원이고, 교환 직전 컴퓨터 A의 장부금액은 2,100,000 − 800,000 = 1,300,000원이다.

교환의 측정과 추가 지급 현금: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컴퓨터 A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으므로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한다. A를 넘겨주는 대가는 A의 공정가치 1,325,450원으로 보며, 이를 A의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추가 지급한 현금 1,500,000원은 **컴퓨터 B를 취득하기 위해 더 지급한 대가**이므로 A의 처분손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처분손익: 컴퓨터 A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 = 1,325,450 − 1,300,000 = 25,450원이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이익이며, 처분이익 25,450원을 제시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라이선스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지역 내에서 이용하기로 한 권리를 말하며,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각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상호, 상표와 같은 브랜드 네임은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록하여 상각한다.

④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하기 어려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간별로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통해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부분을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형자산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려면 **활성시장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드물어 적용이 제한되지만, 재평가모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라이선스를 취득원가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모든 라이선스를 일정기간 동안 상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큰 비용 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고 순현금유입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비한정 내용연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용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기간까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한 지출을 기업 전체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지출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여 자산으로 기록하고 상각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O: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여 인식한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비한정은 영원히 가치가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상각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NoteBase

문 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세금이 징수되는 시점에 분납되는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누어 납부하도록 허용한 것은 납부 시기를 나눈 것이므로, 실제로 징수할 때마다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국세는 국가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거두는 비교환수익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은 비교환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국세의 징수 방식별로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정한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제1호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를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고 이후 실제 납부할 때까지 수익 인식을 미루지 않는다.

② O: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방식에서는 국가의 고지가 수익 인식의 기준이므로 실제 세금 수납 시점과 구별한다.

③ X: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연부연납은 세금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를 나누어 하더라도 수익을 분납액별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으로 인식한 세액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채권으로 남고, 이후 이를 징수하면 현금이 늘고 미수채권이 줄어든다.

④ O: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자이다. 단순히 소득 지급 과정에서 세금을 떼어 둔 때와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때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의 2017년 수정전시산표와 결산수정사항을 근거로 재무상태표에 공시될 자본은?

<2017년 수정전시산표>

현금	₩15,000	매입채무	₩3,000
매출채권	₩5,000	미지급금	?
재고자산	₩3,500	단기차입금	₩25,000
토지	₩10,000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50,000	자본금	₩10,000
소모품	₩1,500	이익잉여금	₩21,000
매출원가	₩2,500	매출	₩18,000
보험료	₩500		
급여	₩1,000		
합 계	₩89,000	합 계	₩89,000

<결산수정사항>

◯ 광고선전비 ₩1,000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다.

◯ 결산일 현재 소모품 잔액은 ₩500이다.

◯ 건물은 2016년 7월 1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000,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월할 감가상각한다.

◯ 토지는 2017년 중 취득하였으며 2017년 결산 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2017년 말 공정가치는 ₩7,000이다.

◯ 단기차입 조건은 무이자 조건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5,000

② ₩22,500

③ ₩26,000

④ ₩29,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건물은 7월에 취득했으므로 2017년에는 연수합계법의 1차 연도와 2차 연도 상각액을 각각 6개월씩 반영하여 **감가상각비 14,000원**을 인식한다. 나머지 결산수정까지 반영한 당기순손실 5,000원을 기존 자본 31,000원에서 차감하면 기말 자본은 26,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정 전 손익과 자본: 수정전시산표의 매출은 18,000원이고, 이미 계상한 비용은 매출원가 2,500원, 보험료 500원, 급여 1,000원이다. 따라서 수정 전 순이익은 18,000 − 2,500 − 500 − 1,000 = 14,000원이다. 자본금 10,000원과 이익잉여금 21,000원의 합계는 31,000원이며, 여기에 결산수정 후 당기손익을 반영하여 기말 자본을 구한다.

광고선전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한다. 미지급 광고선전비 1,000원을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추가 계상하므로 당기손익은 1,000원 감소한다.

소모품비: 수정 전 소모품 1,500원 중 결산일에 남아 있는 금액은 500원이다. **사용한 금액**인 1,500 − 500 = 1,000원을 소모품비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은 1,000원 감소한다.

건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50,000 − 10,000 = 40,000원이다.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므로, 1차 연도의 상각률은 $\frac{4}{10}$, 2차 연도의 상각률은 $\frac{3}{10}$이다. 취득일이 2016년 7월 1일이어서 **2017년 상반기는 1차 연도, 하반기는 2차 연도**에 속한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 상각액은 $40{,}000 \cdot \frac{4}{10} \cdot \frac{6}{12} = 8{,}000$원이고, 하반기 상각액은 $40{,}000 \cdot \frac{3}{10} \cdot \frac{6}{12} = 6{,}000$원이다. 당기 감가상각비는 8,000 + 6,000 = 14,000원이다. 전기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이미 전기 손익에 반영되었으므로 당기 비용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평가손실: 문제에서 지정한 **공정가치모형**에 따라 토지 장부금액 10,000원을 기말 공정가치 7,000원으로 조정한다. 차액 10,000 − 7,000 = 3,000원을 당기 평가손실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은 3,000원 감소한다.

그 밖의 조건: 단기차입금은 무이자이므로 추가 이자비용이 없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손 관련 비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기말 자본: 추가로 반영할 비용과 손실의 합계는 1,000 + 1,000 + 14,000 + 3,000 = 19,000원이다. 수정 전 순이익 14,000원에서 이를 빼면 14,000 − 19,000 = −5,000원으로, **당기순손실 5,000원**이 발생한다. 기말 이익잉여금은 21,000 − 5,000 = 16,000원이며, 기말 자본은 자본금 10,000원과 이익잉여금 16,000원을 합한 26,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A~C의 세 가지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이다. ㉠~㉢의 금액을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의 자본거래는 없다)

거래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배당금
A	㉠	₩3,000	₩8,000	₩9,000	₩9,000	₩10,000	₩2,000
B	₩15,000	₩9,000	₩10,000	㉡	₩10,000	₩7,000	₩3,000
C	₩20,000	₩15,000	₩9,000	₩7,000	㉢	₩8,000	₩4,000

① ㉠: ₩12,000, ㉡: ₩5,000, ㉢: ₩12,000

② ㉠: ₩12,000, ㉡: ₩6,000, ㉢: ₩12,000

③ ㉠: ₩15,000, ㉡: ₩5,000, ㉢: ₩14,000

④ ㉠: ₩15,000, ㉡: ₩6,000, ㉢: ₩14,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이므로, 기말자본을 구할 때 순이익을 더한 뒤 별도로 차감한다. 이 관계와 '자산 = 부채 + 자본'을 적용하면 ㉠은 15,000원, ㉡은 6,000원, ㉢은 14,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각 거래는 독립적이므로 A⊠C의 금액을 서로 이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제시된 자료 외의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기초자본에 순이익을 더하고 배당금을 빼면 기말자본이 된다. 배당금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금액으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A의 ㉠: 총수익 9,000원에서 총비용 10,000원을 빼면 순이익은 −1,000원으로, 순손실 1,000원이 발생했다. 순손실과 배당금 때문에 자본이 감소했으므로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에 순손실과 배당금을 더해** 구한다. 기초자본은 9,000 + 1,000 + 2,000 = 12,000원이다. 따라서 기초자산 ㉠은 기초부채와 기초자본을 합한 3,000 + 12,000 = 15,000원이다.

B의 ㉡: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15,000 − 9,000 = 6,000원이다. 순이익은 10,000 − 7,000 = 3,000원이고 배당금도 3,000원이므로, **순이익에 따른 자본 증가와 배당에 따른 자본 감소가 상쇄**된다. 기말자본 ㉡은 6,000 + 3,000 − 3,000 = 6,000원이다. 기말부채 10,000원은 기말자산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며, 기말자본 계산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C의 ㉢: 기초자본은 20,000 − 15,000 = 5,000원이며, 기말자본은 7,000원이므로 자본은 2,000원 증가했다. 배당금 4,000원을 지급하고도 자본이 이만큼 증가했으므로, **순이익은 자본 증가액에 배당금을 더한** 2,000 + 4,000 = 6,000원이다. 총수익은 순이익에 총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 ㉢은 6,000 + 8,000 = 14,000원이다.

㉠ 15,000원, ㉡ 6,000원, ㉢ 14,000원의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 특성인 표현충실성을 갖추기 위한 요소이다.

② 인식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③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적시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특유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마다 다르므로, 항목의 성격이나 크기를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요성은 표현충실성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표현충실성을 갖추기 위한 요소는 완전성, 중립성 및 오류 없음이다. 이는 경제적 현상을 빠짐없이, 편의 없이, 기술과 작성 과정의 오류 없이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다.

② X: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은 **비교가능성**이다. 비교가능성은 유용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므로, 선지의 인식을 위한 최소요건이라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중요성은 항목 간 비교가 아니라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표시 등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③ X: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특성은 **적시성**이다. 중요성은 정보가 언제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그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표시 등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④ O: 정보의 누락, 잘못된 표시 또는 불분명한 표시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서 항목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업 특유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문 13. 제품 100개를 생산할 때 총직접노동시간은 500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표준임률은 시간당 ₩200이다. 당기실제생산량은 120개였고 실제작업시간은 600시간이었다. 당기에 ₩15,000의 불리한 임률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임률은?

① ₩225

② ₩205

③ ₩195

④ ₩17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불리한 임률차이는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높다**는 뜻이다. 실제작업시간 600시간에 대한 시간당 초과액은 $\frac{15,000}{600}$ = 25원이므로 실제임률은 시간당 200 + 25 = 225원이다.

계산 과정

1. 계산 기준: 임률은 노동 1시간당 지급하는 금액이다. 임률차이는 같은 실제작업시간에 실제임률과 표준임률을 각각 적용한 노동원가의 차이이므로 **실제작업시간 60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품 100개당 추정 노동시간 500시간과 실제생산량 120개는 생산량에 따른 표준노동시간을 구할 때 쓰는 자료이다.

2. 시간당 임률 차이: 15,000원의 불리한 임률차이는 실제로 작업한 600시간에 대해 표준임률로 계산한 금액보다 15,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임률이 표준임률을 초과한 금액은 $\frac{15,000}{600}$ = 25원/시간이다.

3. 실제임률: **불리한 차이이므로 시간당 초과액을 더한다.** 표준임률이 시간당 200원이므로 실제임률은 200 + 25 = 225원/시간이며, ①의 ₩225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주)공무는 20×5년에 경비용역수익과 관련하여 현금 ₩1,000,000을 수령하였다. 경비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정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공무의 20×5년 포괄손익계산서상 경비용역수익은? (단, 경비용역수익과 관련된 다른 거래는 없다)

	20×5년 1월 1일	20×5년 12월 31일
미수용역수익	₩700,000	₩800,000
선수용역수익	₩500,000	₩400,000

① ₩800,000

② ₩1,000,000

③ ₩1,100,000

④ ₩1,2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발생주의 수익은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현금수령액 1,000,000원에 미수용역수익 증가액 100,000원과 선수용역수익 감소액 100,000원을 더하면 당기 경비용역수익은 1,2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익 인식 기준: 20×5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에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수령액 1,000,000원에는 다른 기간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섞일 수 있으므로, 다른 관련 거래가 없다는 조건에서 미수용역수익과 선수용역수익의 기초·기말 잔액으로 조정한다.

미수용역수익 조정: 미수용역수익은 용역을 이미 제공하여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현금수령액을 당기 수익으로 바꾸려면 전기까지 인식한 기초 미수액 700,000원을 빼고, 당기에 인식한 기말 미수액 800,000원을 더한다. 미수용역수익이 800,000 − 700,000 = 100,000원 증가했으므로 **현금수령액에 100,000원을 가산**한다.

선수용역수익 조정: 선수용역수익은 현금은 받았지만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기초 선수액 500,000원은 과거에 받은 현금이므로 더하고, 기말 선수액 400,000원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뺀다. 선수용역수익이 500,000 − 400,000 = 100,000원 감소했으므로 **현금수령액에 100,000원을 가산**한다.

당기 경비용역수익: 현금수령액에 두 계정의 조정액을 반영하면 1,000,000 + 100,000 + 100,000 = 1,200,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6년 4월 1일에 (주)대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15,000,000, ₩12,000,000이다. (주)대한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600,000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 3월 1일에 ₩200,000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2017년 9월 1일에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930,000에 처분하였다. 위의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대한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3,000,000이므로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취득 시 ₩250,000의 영업권을 별도로 기록한다.

② (주)대한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150,000만큼 증가시킨다.

③ (주)대한의 현금배당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을 ₩50,000만큼 증가시킨다.

④ (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은 ₩70,000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분법에서는 관계기업의 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 장부금액에 함께 반영한다. 이 문항에서 제시된 순이익 600,000원 전액을 적용하는 출제상 해석에 따르면 증가액은 600,000원 × 25% = 15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관계기업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관계기업의 이익과 배당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① X: 취득일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5,000,000원 − 12,000,000원 = 3,000,000원이다. 이 중 (주)한국의 지분은 3,000,000원 × 25% = 750,000원이므로, 취득원가 1,000,000원과의 차이 250,000원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영업권은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별도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최초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은 영업권을 포함한 1,000,000원이다.

② O: 지분법에서는 관계기업의 취득 후 순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취득일이 2016년 4월 1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 후 발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이 문항은 취득 전후 이익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600,000원 전액을 적용하는 출제상 해석**에 따른다. 이에 따른 지분법이익은 600,000원 × 25% = 150,000원이고, 투자 장부금액도 150,000원 증가하여 1,150,000원이 된다. 이는 연중 취득하더라도 언제나 연간 순이익 전액을 반영한다는 일반 원칙은 아니다.

③ X: 2017년 3월 1일에 받는 배당액은 200,000원 × 25% = 50,000원이다. 지분법에서는 관계기업이 이익을 낼 때 이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인식하므로, 그 이익의 분배인 배당을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면 중복된다. 따라서 배당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지 않고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50,000원 감소**시킨다. 배당 후 투자 장부금액은 1,150,000원 − 50,000원 = 1,100,000원이다.

④ X: 투자 전부를 처분할 때는 처분대금과 **처분 시점의 투자 장부금액**을 비교한다. 제시된 이익과 배당만 반영한 장부금액은 1,0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1,100,000원이다. 2017년 9월 1일의 처분대금은 930,000원이므로 처분손실은 1,100,000원 − 930,000원 = 170,000원이다. 70,000원은 최초 취득원가와 처분대금만 비교하여 이익과 배당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을 빠뜨린 금액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의 20×6년 12월 31일에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이 ₩37,500이었고, 당좌예금과 관련된 다음의 사건이 확인되었다면, (주)한국이 거래은행에서 받은 20×6년 12월 31일자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ㄱ. (주)한국의 거래처에서 매출대금 ₩15,000을 은행으로 입금하였으나, (주)한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ㄴ. 은행은 당좌거래 관련 수수료 ₩2,000을 (주)한국의 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다.
ㄷ.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5,000이다.
ㄹ.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도수표가 ₩6,000있다.
ㅁ. (주)한국은 은행에 ₩47,000을 예금하면서 ₩74,000으로 잘못 기록하였으나, 은행계좌에는 ₩47,000으로 올바로 기록되어 있다.

① ₩22,500
② ₩24,500
③ ₩34,500
④ ₩76,5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에 빠진 입금·이자는 더하고, 수수료·부도수표와 예금액의 과대기록분은 뺀다. 특히 ㅁ은 예금액 전체가 아니라 **과대기록한 차액 27,000원**을 차감하므로, 은행 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22,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0×6년 12월 31일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 37,500원에서 출발한다. 은행이 이미 반영한 거래를 회사가 누락했거나 잘못 기록한 금액만 조정하면 은행 잔액증명서상 잔액을 구할 수 있다.

ㄱ. 매출대금 입금: 거래처가 입금한 15,000원은 은행 잔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 장부에는 빠져 있다. 따라서 회사 장부상 잔액에 15,000원을 더한다.

ㄴ. 당좌거래 수수료: 은행이 계좌에서 차감한 2,000원만큼 예금이 감소했으므로 회사 장부상 잔액에서 2,000원을 뺀다.

ㄷ. 이자수익: 다른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5,000원은 이 문제의 은행 측 잔액증명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회사 장부에는 누락되어 있다. 은행에 반영된 예금 증가분이므로 5,000원을 더한다.

ㄹ. 부도수표: 예금으로 처리했던 수표가 부도나면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없어 예금 잔액에서 제외한다. 은행은 이를 반영했지만 회사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6,000원을 뺀다.

ㅁ. 예금액 기록 오류: 실제 예금액은 47,000원인데 회사가 74,000원으로 기록했다. 회사 장부상 예금이 74,000 − 47,000 = 27,000원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차액 27,000원만 차감**한다. 실제 입금된 47,000원은 은행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다.

가산액은 15,000 + 5,000 = 20,000원이고, 차감액은 2,000 + 6,000 + 27,000 = 35,000원이다. 따라서 은행 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37,500 + 20,000 − 35,000 = 22,5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제품단위당 변동비가 ₩800이며, 연간 고정비 발생액은 ₩3,600,000이다. 공헌이익률은 20%이며 법인세율이 20%인 경우, 법인세 차감후순이익 ₩3,600,0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몇 단위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하는가? (단, 기초재고는 없다)

① 34,000단위

② 40,500단위

③ 44,500단위

④ 50,625단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세후순이익 3,600,000원을 얻으려면 **세전이익 4,500,00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정비 3,600,000원을 더한 금액을 단위당 공헌이익 200원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연간 제조·판매량은 40,500단위이다.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이며,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을 p원이라 하면 $\frac{p-800}{p}=0.2$이다. 따라서 $p=\frac{800}{1-0.2}=1{,}00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 − 800 = 200원이다.

2. 목표 세전이익: 법인세율이 20%이므로 세후순이익은 **세전이익의 80%**이다. 목표 세후순이익 3,600,000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세전이익은 $\frac{3{,}600{,}000}{1-0.2}=4{,}500{,}000$원이다.

3. 필요한 총공헌이익: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이 세전이익이다. 따라서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고정비와 목표 세전이익의 합**인 3,600,000 + 4,500,000 = 8,100,000원이다.

4. 연간 제조·판매량: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공헌이익 200원이 발생하므로, 필요한 총공헌이익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연간 판매량을 Q라 하면 $Q=\frac{8{,}100{,}000}{200}=40{,}500$단위이다.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이 판매량을 충족하려면 당기에 40,500단위를 제조해야 한다.

연간 제조·판매량 40,500단위는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주)국제의 회계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당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화는 없었다)

당기매출액	₩1,500,000
당기순이익	₩200,000
총자산순이익률	20 %
발행주식수	50,000주
자기주식수	10,000주

① 주당순이익은 ₩5이다.

② 유통주식수는 50,000주이다.

③ 평균총자산은 ₩3,000,000이다.

④ 총자산회전율은 3회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한다. 유통주식수는 50,000주 − 10,000주 = 40,000주이므로, 주당순이익은 $\frac{200,000}{40,000}$ = 5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발행주식수 50,000주에서 자기주식수 10,000주를 빼면 유통주식수는 40,000주이다. **당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화가 없으므로** 가중평균유통주식수도 40,000주이며, 주당순이익은 $\frac{200,000}{40,000} = 5$원이다.

② X: 발행주식수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수이고, 유통주식수는 그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수**이다. 따라서 유통주식수는 50,000주가 아니라 50,000주 − 10,000주 = 40,000주이다.

③ X: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평균총자산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순이익률로 나누어** 구한다. 주어진 20%를 0.20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frac{200,000}{0.20} = 1,000,000$원이므로, 평균총자산은 3,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다.

④ X: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을 활용하여 매출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나타낸다. 당기매출액 1,500,000원과 앞에서 구한 평균총자산 1,000,000원을 적용하면 $\frac{1,500,000}{1,000,000} = 1.5$회이다. 따라서 3회가 아니라 1.5회이다.

NoteBase

문 19.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이자지급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③ 금융자산 관련 무위험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④ 채무자의 파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위험이자율 하락 자체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는 시장의 금리 변화일 뿐,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악화되거나 원금·이자의 회수에 문제가 생겼음을 뜻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

금융자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란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음을 보여 주는 관측 가능한 정보이다. 그 영향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회수하는 데 문제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은 돈을 갚을 능력이 악화되었음을, 이자지급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은 약정된 현금흐름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채무자의 파산도 원금과 이자의 정상적인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현금흐름의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반면 무위험이자율 하락은 시장에서 돈의 시간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변한 것이며, 그 자체로 채무자의 지급능력 악화나 계약 불이행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른 조건과 받을 현금흐름이 같다면 할인율 하락은 오히려 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무위험이자율 하락 자체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20×6년 초에 컴퓨터 매매업을 시작한 (주)한국에 대한 회계정보이다.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현금액은?

○ 포괄손익계산서 (2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	₩700,000
매출원가	₩400,000
매출총이익	₩300,000
이자비용	₩150,000
감가상각비	₩35,000
당기순이익	₩115,000

○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20×6년 기말잔액

매출채권	₩20,000
재고자산	₩12,000
매입채무	₩15,000

① ₩103,000

② ₩133,000

③ ₩152,000

④ ₩173,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 115,000원에 **비현금 비용과 운전자본 변동**을 조정한다. 감가상각비 35,000원과 매입채무 증가액 15,000원을 더하고 매출채권·재고자산 증가액 32,000원을 빼면,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은 13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출발 금액: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총이익 300,000원에서 이자비용 150,000원과 감가상각비 35,000원을 차감한 115,000원이다. 이 금액은 발생주의 이익이므로 현금흐름으로 바꾸려면 비현금 비용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해야 한다. 20×6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의 기초잔액은 0원이고, 제시된 기말잔액이 각각의 증가액이다.

감가상각비 조정: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줄였지만 **비용 인식 시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35,000원을 다시 더한다. 조정 후 115,000 + 35,000 = 150,000원은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매출채권 조정: 매출채권 증가액 20,000원은 매출로 인식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다. 이익에 포함된 미수령분을 제외하기 위해 20,000원을 차감한다.

재고자산 조정: 재고자산 증가액 12,000원은 상품을 매입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아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매입분**까지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해 12,000원을 차감하고, 매입대금 중 미지급분은 매입채무 조정에서 반영한다.

매입채무 조정: 매입채무 증가액 15,000원은 상품 매입대금 중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 현금 지출은 그만큼 적으므로 15,000원을 더한다.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 150,000 - 20,000 - 12,000 + 15,000 = 133,000원이다.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